

國際土質 및 基礎工學會

아시아地域 代表者 會議 參加報告

김 상 규*

국제토질 및 기초공학회 아시아 지역 대표자 회의는 통상 學術會議 기간 중 개최되므로 4년마다 한번씩 열리는 셈이다. 아시아지역 부회장 이시하라 교수로부터 이번의 대표자회의도 예년과 다름없이 제9차 아시아 地域會議 도중에 개최한다는 통보를 오래전에 받고 있었다. 이 회의의 중요안건은 1995년에 개최되는 제10차 회의의 개최지를 정하는 일과, 차기 아시아지역 副會長(1994-1998)을 내정하는 일이었다.

韓國地盤工學會 理事會에서는 이번 대표자 회의에 회장과 학술 전담이사 홍성완 박사를 대표로 파견하고, 한국이 1995년에 개최되는 제10차 아시아 지역회의의 개최지 후보로 신청할 것을 결의하였다. 사실은, 현재의 우리들의 실정으로 보아 4년후의 아시아 지역회의의 유치가 다소 무리라고 생각되기는 하였지만, 이와 같은 대규모의 국제회의를 개최함으로써 국내 지반공학의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을 것이라는데 모두 同感하고, 유치를 위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이때 이미 우리는 중국과 이란이 개최지신청을 하고 있다는 정보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경쟁에 이기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먼저, 우리의 意向을 이시하라 부회장에게 보고하는 한편, 아시아지역내 여러 지반공학회 회장에게 1990년에 개최된 韓日 심포지움의 논문집과 함께 우리에게 지지를 부탁하는 서신을 송부하였다. 개최장소는 우선 인터콘티넨탈 호텔

로 정하고 회의장의 규모와 시설등을 조사하고 아울러 觀光公社로부터도 팜프렛을 입수하여 대표자회의에서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꾸준히 준비하였다.

1991년 12월 9일 제9차 아시아지역 학술회의가 시작되자마자 각국 代表者를 만나서 한국을 지지하도록 표를 부탁하는 것이 우선 신경이 쓰이는 일이었다. 많은 참석자들은 다음 開催地가 어디로 될 것인가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나타내었고, 다행히도 동남아시아의 여러 참석자들은 한국에서 개최되기를 희망하고 유치경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많은 충고와 격려를 해주었다. 특히 싱가포르 대학의 Lee 교수는 여러 가지 정보를 알려주면서 우리를 대신해서 다른 대표들에게 한국을 지지하도록 부탁하기도 하였다. 동남아시아 지반공학회에서는 대표자회의 하루전에 任員들이 모여 한국을 지지하는 쪽으로 결정했다는 반가운 소식도 들어왔다. 사실 투표 직전까지도 幸運의 女神이 우리 편을 드는 것처럼 느껴져서 이 큰 일을 어떻게 치룰 것인가 하는 걱정과 幻想에 사로잡히기도 하였다.

아시아지역 대표자 회의는 회의시작 4일이지난 1991년 12월 12일 17:00에 회의장소인 Imperial Hotel의 Lumpini Room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는 아시아 지역 부회장인 이시하라 교수를 비롯하여 각국의 대표자 2명씩 10개국 대표자(이란과 베트남은 1명씩 참석하였음)가 참석하였으나 인도네시아와 시리아는 대표

* 정희원, 동국대학교 공과대학 토목공학과 교수, 당학회 회장

를 보내지 않았다. 國際土質工學會長 Morg-enstern 교수와 事務總長 Parry 교수는 옵서버 자격으로 참석하였다.

회의가 시작되기 전 먼저, 각국 대표자의 확인과 각국을 대표하는 투표자 1명씩을 정하였다. 사회자인 이시하라 교수는 두개의 案件을 설명하고, 10차 아시아 지역회의의 개최장소의 결정을 제1안건으로 상정하였다. 開催場所의 신청은 중국, 이란 및 한국의 각 학회로부터 있었다는 것을 소개하고, 차례로 각국에서 준비한 유치내용을 10분내로 설명하도록 요청하였다.

중국은 미리 준비한 비디오를 가지고 北京의 회의장소의 규모와 시설을 자세히 소개하고 萬里長城과 북경의 풍경도 곁들여 관광의 매력도 포함시켜 설명하였다. 그러나 受像機의 문제때문에 화면은 깨끗하게 보였으나 소리가 나오지 않아 유감이었다. 이란대표는 구두로만 설명하였다. 한국은 그동안 애써 준비해온 슬라이드를 가지고 홍성완박사로 하여금 설명하게 하였다. 홍박사가 그동안 준비했던 설득력 있고 요령있는 설명이 다른 나라에 비해 유난히 돋보였다. 투표에 들어가기전에 Brand 박사의 제의로 신청국 대표에게 특별히 入國上의 제한이 있는 국가가 있는지 여부와 희망하는 개최일자등을 추가로 설명하도록 하였다.

투표권은 각국의 대표자 1명에게만 부여하고, 無記名으로 개최희망국가를 투표용지에 기입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전체 투표수는 10표이고, 그 결과는 중국 6, 한국 2, 이란 2로 나타났다. 중국이 강적이라는 것을 미리 예상은 하였지만 2표밖에 못얻은 한국의 득표수에 대해 너무나 실망이 커서 이 순간의 우리 두사람의 허탈감이란 뭐라고 表現해야 할지 모르겠다.

두번째 안전인 차기 부회장 선출은 자연스럽게 Bala교수에게 그 영광이 돌아갔다. Bala교수의 학문적인 名聲은 물론 9차 아시아 지역회의의 組織委員長을 맡으면서 치밀한 회의구성과

운영으로 성공적인 회의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그 공과 영광이 이분에게 돌아간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이번의 대표자회의는 우리 한국이 국제학회에 가입한 이래 우리의 요구에 대해 아시아 각국으로부터 평가를 받은 기회가 되었다는 점에서 큰 意味가 있었다고 말 할 수 있다. 회의가 끝난 후 Moh박사와 Brand박사가 지적하였듯이 우리는 국제회의에 가입한 年數가 짧고, 중국은 이미 두번의 유치실패의 쓴 경험이 있어서 동정표가 많았다는 것이 敗因이기는 하지만, 우리에게 대한 지지율이 20%에 지나지 않았다는 사실은 우리들에게 무언가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것 같이 생각되었다. 유치경쟁에서 이기는 것은 몇 달동안의 준비와 로비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오랜 기간동안 축적되어 온 業績과 能力으로 평가된다는 것을 이번 대표회의에서 절감하였다. 이번 회의의 한국의 많은 참석자들이 느낀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후진국이 지반공학에 관한 한 결코 우리보다 뒤떨어진 나라가 아니라는 엄연한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 같다.

이제 8년 후의 큰 일을 도모하려면 앞으로의 4년간이 대단히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된다. 이 기간에 우리는 더 많은 업적을 쌓고 이것이 외국에 많이 홍보되도록 하는 것이 유치경쟁에서 이기는 捷徑이 아닌가 생각된다. 다행히도 우리는 霸氣에 찬 젊고 능력있는 일꾼이 다수 있으므로 우리들이 棼心만 하면 8년후의 유치는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나는 확신하고 있다.

투표 결과에 대해 실망하고 어깨가 축 늘어져 나오는 우리 두사람을 호텔의 커피숍에서 2시간동안 투표결과를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던 박병기 교수, 정형식 교수 등 여러 한국 참석자들의 友情에 감사드리면서, 이것으로 대표자회의 결과보고에 대한 글을 맺고자 한다.